

망진에서 바라보는 화장문화의 심리학적 접근

김경신^{1, 2} · 강정수¹ · 김병수^{1, 2*}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Makeup in the Inspection

Kim Kyoung-Shin^{1, 2} · Kang Jung-Soo¹ · Kim Byoung-Soo^{1, 2*}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²Dam-In Incorporation, 96-3 Yongun-dong Dong-gu Daejeon #12103

This study is to identify culturally the psychological effect of men and women's make-up, to examine men and women's tendency toward make-up and to figure out relationships between their psychological properties and its functions in modern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Inspection(望診). This study has verified that makeu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reation and self-confidence as well as it meets their fundamental aesthetic needs. The makeup of the psychological action on men and women is different as eroticism, feminism and etc.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make-up are the needs of a variety of fashion, trend of public opinion, a cultural difference and etc. And further studies about psychological reason why they wear makeup need to be made. Makeup has an effect on their looks and it has a psychological effect of being able to decorate and move their mind. Fi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for psychological approach to makeup could contribute on the study for positive makeup treatment and basic foundation of Inspection(望診) and physiognomy(觀相) in Oriental medicine.

Keyword : Make-up, Psychological effect, Modern Society, Sexual display, Inspection.

I. 서론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삶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 못지않게 비물질적인 개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을 지니는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의 한 부분으로도 비중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¹⁾.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화장은 피부의 결점을 보완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²⁾. 화장은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인 하나로 화장을 통하여 인상을 관리하거나 의도적인 연출을 할 수 있다³⁾.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kbsoo25@dju.kr
접수일 : 2011년 1월6일 수정일 : 2011년 1월12일
게재확정일 : 2011년2월8일

1)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2) 김수진, 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84-93, 1998.
3) 한명숙, 선정희.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7(2):73-85, 2001.

또한 패션의 일부로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사회 문화적 범주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매력을 특유한 의미로 상징화 시키는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화장을 통하여 자신이 느끼게 되는 변화된 이미지는 문화 기준과 연동하면서 인상을 조작하며 화장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 속의 화장은 화장품의 발달로 인해 피부의 건강과 질환의 예방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화장술의 발달로 얼굴을 전혀 딴 사람처럼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다. 그만큼 메이크업은 매력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얼굴을 통해 환자의 질병과 체질을 예측하는데 이와 같은 망진은 形과 氣色을 위주로 진행된다⁵⁾. 망진의 氣色은 色澤으로 외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靈樞·本藏』에 “밖으로 그 발현된 것을 보아서 內臟을 알 수 있으니, 病所를 알 수 있다”⁶⁾라고 하는 것은 내부 장부 상태가 색택을 통해 외부, 특히 안면으로 발현되어 진단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장으로 인해 타인이 바라보는 인상이 보다 아름다워지면서 망진 및 관상학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하는 심리적 이유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녀의 화장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근거로 향후 망진 및 관상 연구에 기초적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여성의 화장

1) 생물학적 이유

농경사회가 정착되면서 부계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의 주도권이 남성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여성의 위치는 종속적 관계로 화장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미적 표현으로 전환되었다.

데즈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동물행동학)는 Man Watching (1977)에서 화장은 성(性)을 강조하기 위한 신호로서, 더욱이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인할 인상관리의 일환으로서 성적 과시의 의미라고 하였다⁷⁾. 성적 과시의 의미는 동물들의 ‘ 짝짓기 행동’에서 잘 보여주는데, 동물들은 외관의 색채와 장식으로 짝짓기 시기를 나타낸다. 종족의 번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 동물들에게 짝짓기 시기와 가능한 개체의 유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 특유의 색채와 문양 띠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리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요인이고, 이종간 교배를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적식별표시’는 번식기 특유의 색채(혼인색), 장식(생식깃털), 냄새(페르몬)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에 있어서 암수의 만남이 짝짓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종족유지를 위한 배우자는 자기 유전자를 보다 많이 남기기 위해 짝짓기의 기회를 최대화하려는 본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물의 성징 변화는 생식행동과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외적으로는 성적 과시(Sexual display)와 내적으로는 성호르몬과의 불가분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색(婚姻色 ; nuptial coloration)이나 생식깃털(npital plumage), 포유류의 성피(性皮 ; sexual skin), 띠 등이 해당된다. 번식기에 이른 물고기는 색채가 변하여 그 변화로 이성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번식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수컷은 암컷의 이러한 ‘신체적 자기의태(自己擬態)’에 의해 성교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 할 수 있다⁸⁾.

4) 이난희. 현대사회의 화장의 의미. 2004년도 한국의상 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1-25, 2004.

5)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對한 研究, 大田大學校, p.23, 1999. 참조

6)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p.70, 1982.

7) 大坊郁夫, 神山 進 編集.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京都, 北大路書房, pp30-40, 1996.

8) 정복희. 화장과 인간 예로티시즘.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2):104-110, 2008.

이와 같이 수컷 동물들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 같은 형질들을 종종 발달시킨다는 사실은 짝짓기의 미스터리로 남겨 되었다. 이에 대해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 ~ 1882)은 혁신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공작새의 경우에 수컷은 아무 암컷에게나 짝짓기 행동을 보이지만 암컷은 단 한 마리의 수컷과 짝짓기를 하는데, 보통은 가장 멋진 꼬리를 가진 수컷과 짝을 이룬다. 성선택 이론에 따르면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긴 꼬리를 가지도록 진화해온 것이다⁹⁾. 하지만 공작의 눈부신 깃털은 스스로를 포식자들 눈에 더 잘 띄게 만들어 생존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함에도 진화가 계속된 까닭은 공작의 꼬리가 각 개체의 번식 성공도를 높여주었다는 것으로 화려한 꼬리를 가진 공작 수컷들은 우수한 배우자를 얻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그러한 유전적 특질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성선택(Sexual Selection)은 생존상의 이득이 아니라 번식상의 이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떤 형질이 선택되어 진화하는 현상으로 성내경쟁(Intrasexual Competition)을 동반한다. 성내경쟁은 동성의 개체들이 이성 배우자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경쟁에서 이긴 개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는 형태로서 하나의 성에 속하는 개체들이 특정한 특질을 지닌 이성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보다 더 선호하게 되어 배우자로 하여금 더 자주 선택 받는 개체들은 유전자를 후대에 보다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질들이 진화하게 됨을 설명하였다¹⁰⁾.

사람에 있어서 화장은 여성이 주체인 것에 대해 동물에서는 성적과시의 주역이 수컷이라는 것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배우상대의 선택권이 대부분의 경우 암컷 쪽에 있고(female choice), 암컷이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진화(성

도태; 性淘汰)한 결과이다. 반대로 많은 암컷의 경우, 장식이나 색깔 변화가 적은 것은 배우상대를 선택하는 쪽이라는 점과 함께 많은 종류에 있어서 자녀교육의 주체가 암컷 쪽이러는데 있다. 새끼를 기르고 지키기 위해 눈에 띄기 쉬운 색채나 장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¹⁾. 더구나 동물 중에서도 인간은 임신기간이 길고 여타의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취약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에 따라 임신과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동물과는 다른 선택적 요소를 갖게 되는데,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룬 이후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남성의 경제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여성의 화장은 자신의 우월적 외모를 통해 젊음과 건강함 보여줌으로써 이성의 유혹이라는 근원적인 목표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화장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만족인 나르시즘의 형태로서 나타내게 되었다.

2) 나르시즘 (Narcissism)

나르키소스(Narkissos)의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랑은 그리스말로 수선화를 뜻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전승된 문헌들 가운데, 나르시스에 얽힌 이야기를 가장 충실히 전해주는 것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P. Ovidius Naso)의 「변신이야기」(Metamorphoses)이며¹²⁾,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강의 신 케피소스(Kephissos)와 요정 레이리오페(Leiriop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나르키소스는 나르케(na/rkh)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 뜻은 ‘마비(마취)시키는 자’를 뜻한다. 레이리오페가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Tiresias)에게 그의 운명이 천수를 다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9) 매트 리들리, 김윤택 역. THE RED QUEEN. 서울, 김영사. p204, 2006.

10)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p20, 2007.

11) 정복희. 화장과 인간 에로티시즘.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2):104-110, 2008.

12) 나르시즘의 꿈. 김상봉. 서울, 한길사. pp88-89, 2002.

P. Ovidius Naso, Metamorphoses, ed. W, S, Anderson (Stutt-gart & Leipzig, 1991).

‘그럴것ियो. 만약 그가 자기를 알게 되지 않는다면’ (si se non noverit)¹³⁾이라는 조건으로 답변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진 까닭에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였으나, 그는 그들의 사랑을 도리어 역겨워하고 멸시하였다. 어느 날, 나르시스를 사랑하였으나 도리어 그에게 ‘멸시받은 어떤 사람(aliquis despectus)’¹⁴⁾ 이 하늘을 향해 손을 벌려 이렇게 저주하였다. ‘그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나 결코 사랑을 얻지 못하게 하소서! (sci amet ipse licet, sic non potiatu amato!)’¹⁵⁾ 복수의 여신은 이 기도를 들어주었다¹⁶⁾.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어두운 세계에 영원히 갇혀 있거나 또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자기 무지의 속박에서 풀려난다. 비록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볼 입장에 서지도 못하고, 현실의 자신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자신을 전혀 알 수 없다. 만약 아름다움이 퇴색한다는 사실을 그가 수용할 수 있다면 그의 사랑스러움은 축하할 만한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실과 변화라는 현실을 지나칠 정도로 거부함으로써 그의 아름다움은 기형이 되어버린다¹⁷⁾.

19세기 후반의 성의학자 헨리 엘리스(Henry Havelock Ellis, 1859~1939)는 나르키소스(Narkissos)신화를 심리학에 연결하여 동성애를 자기 사랑의 병리현상으로 보았다. 또한 폴 나크(Paul Nacke)는 ‘병적인 자기 사랑, 혹은 자기 감탄’이라는 의미로 규정하였다¹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나르시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자기 신체에서 만족을 구하는 자기애는 ‘오브젝트 리비도’라는 타자애로 향하게 되고, 다시 자기애로 돌아오게 된다. 나르시즘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이지만 자기애, 타자애, 자기애의 각 단계가 순조롭게 교체되지 못하면 자기애에 머물게 되고 강화되면서 병적인 이상심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기애를 ‘여성적 나르시즘’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은유적 표현에서 여성에 대한 자신의 선가정(presupposition)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여성적 나르시즘에서 자기애는 언제나 수치심을 동반하고 그것은 여성의 성적 열등감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위계적 사회에서 여성의 미성숙한 사랑의 상징으로 공적이고 이성적인 자기 통제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르시즘 미학은 가부장제와 운명을 같이하며 아름다운 여성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랑해주는 가부장제 미학을 필요로 한다. 즉 여성의 미는 남성들의 시선, 권력을 가진 시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나르시즘은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것이 곧바로 주체화의 전략이 될 수 없으므로 나르시즘이 가져주는 만족보다는 ‘나르시즘의 상처’로서 남겨된다. 나르시즘이 쾌락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과시로서 자기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사랑의 원인과 결과는 상처와 자기 부정으로 나타난다¹⁹⁾.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중요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좌절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주요하다는 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미적)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절망과 좌절감,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에 대한 환멸의 대상이 된다. 이를 칼 아브라함(Karl Abraham, 1877-1925 : 정신분석가)은 ‘자기부정적’으로 규정하였다²⁰⁾.

13) Metamorphoses, III 384.

14) Metamorphoses, III 404

15) Metamorphoses, III 405

16) 나르시스의 꿈. 김상봉. 서울, 한길사, p88, 2002.

17) 김주원.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 -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즘 미학. 미학 55:81-118, 2008.

18) 제레미 홉즈. 나르시즘. 서울, 이제이북스, p7, 2004.

19) 김주원.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 -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즘 미학. 미학 55:81-118, 2008.

나르시즘 여성 미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와 성적 매력에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면, 그 시선을 끌 수 있는 아름다운 외모는 곧 권력이 된다.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 남성들은 그녀에게 복종할 것이며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통해 남성을 지배하게 된다.' 나르시즘이 여성주의 여성미학으로서 간주된다면 여성들이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제 미학에서의 여성미를 그대로 수용하고 체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그 여성미가 반가부장제적인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르시즘은 단순한 자기 긍정의 미학이 아니며, 자기부정, 파괴, 과도함, 보상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되므로 나르시즘의 쾌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현대에 있어서 여성들은 방식과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여성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미적인 압력(aesthetic oppression)'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적 압력이란 '아름다워야만 한다(be beautiful)'는 명령을 의미한다²⁰⁾. 미적 압력은 긍정적 형식의 압력이면서, 필연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 미적 경멸(aesthetic derogation)을 정당화 한다. 여성들의 외출 준비는 대부분 강요된 미적 노동이다. 공적인 공간에 맨얼굴(민낯)으로 나타나는 여성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자로서, 미적으로 열등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열등한 사람이 된다. 심지어 스스로를 가꾸지 않는 여성들은 자기애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고 손쉬운 인신공격에 노출되기도 한다. 미적 경멸은 개인적인 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경멸로 이어지고 실제적인 차별과 억압을 조장한다²²⁾.

3) 페미니즘

페미니즘(feminism)의 어원은 여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된 언어로 여권주의 또는 여성주의를 뜻하며 17세기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여성해방 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시각 또는 이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²³⁾.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한 단순한 사회적 평등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의미들과 함께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화 현상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 문화 예술 그리고 패션의 전개에 있어서도 페미니즘의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남성 중심적 세상으로부터 전 세대 여성주의자들의 투쟁, 곧 여성들의 참정권, 공직 진출, 사적 영역을 위한 투쟁으로서 페미니즘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평등권 쟁취를 통해 가부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다. 하지만 포스트페미니즘은 개인의 선택을 더 강조하여 '여성성'을 인정하고 여성이라는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인다. 포스트페미니즘적 여성은 자신의 선택, 자기계발, 자기표현을 강조하며, 이러한 수단에는 '소비'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여성주체의 역량과 능력, 자기애, 그리고 자기성장을 강조하고 중시하면서' 여성인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해간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현상의 문제점은 과거에 페미니즘의 틀 안에서 남성 중심 문화나 왜곡된 사회적 관습 같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문제가 여성 개인의 문제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집중적으로 분석되었을 구조적 현상들이 이제는 개인의 능력 차로 자칫 치부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페미니즘적 문화의 소비는 여성들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그것들을 파편화, 개인화 하여 인식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갖게 되었다. 즉, 포스트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이성적 여성상은 결국 자기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

20) Abraham, Karl. selected papers of Karl Abraham. London, Hogarth Press, 1973.

21) Bartky, Sandra Lee, "Suffering to be Beautiful", Gender Struggles: Paractical approaches to Contemporary Feminism, constance L. Mui & Murph(ed.),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S., 2002.

22) 김주원.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 -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즘 미학. 미학 55:81-118, 2008.

23) who's afraid of feminism, Women in action, p40, 1995(3).

그만큼의 자신감을 지닌 특권 계급의 젊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만연해 지는 것은 기존 페미니즘에 반동적이라는 비판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포스트페미니즘은 ‘반페미니즘(anti-feminism)’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 식민주의를 포함하는 반원리주의 운동과 페미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나 예이트만(Anna Yeatman)은 ‘포스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이론과 정치학이 확고하게 성숙되었고, 이와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은 반영하며 페미니즘 안에서의 차이와 다원성을 내포한다.’²⁴⁾

포스트페미니즘은 다양성과 차이, 관점과 맥락에 기반한 다양한 페미니즘의 시도로서 패권적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은 전세대 여성주의자의 고된 노력의 결과 성차별적 사회 시스템은 점차 개선되었다. 이것은 여성이 사회의 주체는 되지 못했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성들과 권력과 경제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포스트페미니즘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가부장제 미학을 체현하는 역행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페미니즘 세대는 가부장제의 해체가 요원하다는 순응적 판단 하에 도취적 나르시즘의 전략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²⁵⁾ 이와 같은 도취적 나르시즘은 여성의 매력적인 외모를 통해 남성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권력을 갖는 것이므로 여성의 관능성은 최대로 노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젊고 아름다움 여성은 곧 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로 인해 외모지상주의의 한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포스트페미니즘 세대는 길으로 드러난 외모만큼이나 그들이 취하고 있는 미적 전략은 가부장제의 여성으로서 교육받으면서도 가부장제 정체

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사회적 참여를 강요 받고 있으면서도 미적 행동에 있어서는 나르시즘의 여성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모는 물론 사회적 능력 까지도 갖는 ‘알과 겉’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성역할 정체감이 모호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과거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남성을 개발한 여성이나 여성성을 개발한 남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²⁶⁾. 성역할 정체감이란 특정 성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를 의미한다. 즉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정체감이란 남자는 전통적 남성적 특성을 여자는 고정관념적으로 여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간주하는 행위, 태도, 가치관 등을 습득하여 내면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한 개인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정형화하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성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을 ‘심리적 양성성(adrogynous)’이라 한다. 이와 같은 성역할 정체감은 사회활동이나 화장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남성성을 나타내는 여성은 헤어스타일이나 짙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⁸⁾. 이들 집단에 대하여 콘트라 섹슈얼(contrasexual) 또는 미즈스트롱(Ms. Strong)로 칭하며, 전통적 여성상을 벗어난 사회 활동이나 경제활동 면에서 활발하며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낸다²⁹⁾.

또한 여성성을 개발한 남성인 경우는 최근 20대 남성들이 남성적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 따라 양성성 정체감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성성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포스트모더니즘

24) Anna Yeatman. *Postmodern Revisionings of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p49, 1994.

25) 김주원.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 -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즘 미학. 미학 55:81-118, 2008.

26) 김용숙. 성인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신체 및 화장이미지. 복식 59(3):55-56, 2009.

27) 임정빈, 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pp127-149, 1997.

28) 구자명, 이구영.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행동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6(2):124-136, 2002. /p134

29) 임정빈, 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pp127-149, 1997.

사상에 의한 탈 중심경향과 다원주의 페미니즘의 등장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³⁰⁾.

남성적 여성이나 여성적 남성은 각자의 성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것으로 특히, 양성성을 갖는 남성은 개성과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눈이나 입술 화장 등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개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

2. 남성의 화장

1) 초기 남성 화장

화장의 역사는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화장이란 개념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권위의 한 표현으로 사용됐다. 남성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자신의 권위와 전투의식을 과시하기 위해 흙과 자연 광석을 이용, 몸에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지금의 화장개념과는 다르지만 과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현재까지 전통적인 민족 화장이 전승된 지역에서만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는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화려한 화장행동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는 귀족출신의 잘 생긴 사내아이들을 데려다가 화랑도를 조직해 지도자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 때 얼굴화장으로 용맹성과 기품을 돋보이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용맹 과시용 화장술은 무기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퇴색해갔다. 겉으로 용맹만 과시하는 화장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화장은 여성들의 얼굴에서 발전을 거듭했다. 고대의 호족과 수장 외에 근세 프랑스의 남자 귀족도 화려한 화장을 하였으므로 역사적으로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남성화장은 일반적이며, 이들 역시 때로는 여성보다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화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부르주아 왕조 남자 귀족의 화려한 화장은 단지 미의 추구가 아닌 권력과 권위의 표현으로

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가치가 평등에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 노동 남성이 사회의 기준으로서 금욕적 패션을 갖게 되었다. 반면 이 시기에 여성은 호화로운 화장과 의복으로 남편의 지위를 과시함³¹⁾으로서 권력의 과시와 미적 표현의 화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호화로운 복장과 더불어 화장 또한 사라졌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적 배경과 같이 화장의 주체가 변화함을 볼 수 있는데, 원시인류 시대에서는 모계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족사회에서 화장은 미적인 측면보다는 용맹과 과시용으로 서 남자들의 화장술이 나타나게 된다.

2) 현대의 남성 화장

인간 사회에서 서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서열의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색채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색채사용은 지배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색채적인 장식이나 과도한 장신구, 상처나 흉터 등을 신체에 가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후대에도 빈번히 나타났는데, 특히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지속된 복식금제령은 패션을 규제하고 과시를 규정화하여 법으로 정함으로써 귀족의 신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³²⁾.

대체로 화장은 여성의 문화에 가깝다. 특히 우리의 정서로는 남성의 색조화장은 오랫동안 터부시 되어왔다. 그러나 전지역, 전시대를 거쳐 얼굴의 색조화장이 여성에게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에 따라 또는 문화권에 따라서 남성 또한 화려한 색조화장을 즐기기도 하였다. 농경사회 이후 노동의 성분업은 남성미와 여성미의 정체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색조 화장문화가 여성의 것으로 정착이 되었다. 즉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남성은 강한 힘은 노동력으로 중시 되어졌으며

30) 김용숙. 성인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신체 및 화장이미지. 복식 59(3):55-56, 2009.

31) 김주애, 이연희. 남성 화장 특성. 한국패션뷰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pp.41-42, 2004.

32) 大坊郁夫, 神山進 編集.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京都, 北大路書房, pp30-40, 1996.

외모 가꾸기, 특히 색조화장은 여성의 문화로 여겨지게 되었고 남성에게는 거의 터부시 되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전혀 외모 가꾸기에 등한히 하였던 것은 아니고 시대나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행해져 왔다³³⁾.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의 확대와 함께 사람의 신체 외모에 근거하여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들도 우리 사회는 아름다움을 여성의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신체 외모를 가꾸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와 이상적 신체상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의 성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이는 현대사회에 일어난 사회전반의 구조 및 가치변화로 인한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⁵⁾. 여성만큼이나 남성의 외모는 사회적으로나 이성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남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상당히 와해되었으며, 외모 가꾸기가 더 이상 여성적 행위가 아닌 자연스러운 개성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성들이 외모에 대해 느끼는 중압감은 여성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상적 남성상과 같은 특정 외모와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 상황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들은 여성보다 아름다움을 덜 중시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³⁶⁾. 그러나 남성의 외모관리는 남성다움에 대한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수용

되는 변화의 한계 내에서 수준과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³⁷⁾.

이와 같은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은 외모 가꾸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내면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현대남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남성미와 여성 취향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의 도시 남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미를 향한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학 관계에서 남성의 외모가 경쟁력이자 개인의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메트로섹슈얼은 현대 남성들에게 강력한 소비 행동으로서 남성의 부와 능력의 과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영향과 현대인의 개성화와 다양화 추세에 따라,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성적인 이미지 요소와 여성적 이미지 요소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출하는 양성적인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있다³⁸⁾.

이와 같이 남성의 화장은 과거와는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1960년대부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하위문화의 하나인 락뮤지션들은 화려한 메이크업을 통하여 기성 가치관과 경직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화장을 외모 장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자기표현의 하나로서 지금까지의 화장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현대의 남성의 화장은 과거의 권위와 전투의식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양성성이 바탕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로 인해 남성에게서 여성은 과거의 종속 관계가 아닌 사회적으로 경쟁의 관계이며, 결혼적령기에도 쉽게 결혼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몰두하는 '콘트라섹슈얼(contrasexual)' 스타일 여성의 증가, 성공한 여성들에게 선택을 원하는 '온달 콤플렉스'를 갖는 심리적 의

33) 박보영. 남성 색조화장의 역사적 고찰. 인체예술학회지 3(1):39-48, 2002.

34) Aubrey, J. S. The Media's impact on self-objectification, body emotions, and sexual dysfunct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04.

35) 크레이크(Craik), 정인희·함원자·정수진·김경원 옮김.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숲, 2002.

36) 캐쉬, 푸루진스키(Cash, Fruzinsky), 임숙자 외 옮김. 바디이미지. 서울, 교문사, 2000.

37) 포슈(Posch), 조원규 옮김. 몸 숭배와 광기, 서울, 여성신문사, 2001.

38) 박옥련, 이현지.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8(2):364-375, 2004.

존 상태의 남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Ⅲ. 고찰

진화심리학(evolutionary psychology)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여성의 건강과 젊음을 입증해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도톰한 입술, 깨끗한 피부, 부드러운 살결, 맑은 눈,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탄력 있는 근육 등과 같은 신체적인 외양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증거로서 밝고 경쾌한 걸음걸이, 생기 넘치는 얼굴 표정, 충만한 에너지 같은 행동적 특질이 있다. 젊음과 건강, 곧 번식 능력에 대한 이러한 신체적 단서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성의 판단 기준을 이룬다³⁹⁾.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발휘하기 위해 남녀 모두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화장이다. 사람들은 내적, 외적으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화를 고려한 질서있는 연출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⁴⁰⁾.

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녀 화장에 대한 심리적 배경이 변화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맥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관상과 망진도 역시 기본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관점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화장은 남녀의 심리학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패턴이 있다면, 관상과 망진은 객관적인 기준과 관점을 갖으면서 사회적인 요구 또는 생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건강의 기준과 일반 사회가 원하는 아름다움은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생기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미용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데, 인체 미용의 많은 부분 중에서 생명력 있는 아름다움이 결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는 신체와 감정 및 생각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다.⁴¹⁾ 따라서 결론적

으로는 건강미를 갖추고 그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인상이 갖추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관상이자 인상이다.

동양의 대표적인 관상서적인 『마의상법』에 “肉相은 살집이 미끈하고 곧게 뻗으면 貴하고, 옆으로 늘어진듯 몽클몽클하게 뭉치면 淺相이며, 살결은 부풀어 올라오거나 팽팽히 죄어든 것도 좋지 않다. 만일 살집이 몽클거리거나 부풀어 오르면 단명하고, 살결이 죄어든 자는 淺한 상이다. 그러므로 살결은 미끄럽고 윤택하며 탄력이 있고, 살은 적당히 붙어야 富貴를 누리고, 살이 너무 많아 뼈의 윤곽이 없는 자는 凡庸한 인물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였다⁴²⁾. 이는 貴를 누리는 관상은 살결이 윤택하고 탄력이 있어 맑아야 하며, 특히 얼굴에 살이 적당히 붙어야 富한 相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⁴³⁾. 동양에서 좋은 관상 및 망진을 통해 인체 내면의 정신과 생활 습관 및 건강 등을 볼 수 있는 것은 내부의 상태가 외부의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좋은 상의 대표인 君子의 얼굴빛과 모든 형색은 明朗한데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이유는 五臟의 精神은 이를 주재하기 때문이다. 俗人の 얼굴빛과 손바닥의 빛은 검었다 희었다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어둡고 막힌 듯한 기운이 많다는 것 또한 오장의 정신이 주재를 하는 것이니, 만약에 오장의 정신이 이것을 주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길흉과 다투치고 인색하고 아끼는 것을 어찌 상제하기 알 수 있으리오⁴⁴⁾라고 했다. 이와 같은 ‘五藏神’의 정신작용이 안면에 발현되므로 관상에서는 인간의 정서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素問·五藏生成論』에 장부와 오색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장의 생기가 각각 색을 주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는 心에 생기가 있으면 명주로 주사를 짠 것과 같고, 肺에 생기가

용학개론. 서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p16-17, 2007.

42) 조성역 역. 완역 망의상법. 서울, 명문당, pp260-261, 1996.

43) 물론 여기서 살이 너무 많으면 안되고 뼈와 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4) 진담야. 상리형진. 서울, 황금시대, pp452-453, 1998.

39) 데이비드 버스 지음, 진중환 옮김. 육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p117, 2007.

40) 김수진, 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84-93, 1998.

41)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편집위원회 편저. 한방피부미

있으면 명주로 분홍색의 직물을 쓴 것과 같고, 肝에 생기가 있으면 명주로 紺色의 직물을 쓴 것과 같고, 脾에 생기가 있으면 명주로 瓜萋實을 쓴 것과 같고, 腎에 생기가 있으면 자색의 직물을 쓴 것과 같으니 이것이 五臟에 生氣가 있는 外榮이다⁴⁵⁾.”라고 하여 장부의 생기가 오색으로 피부 또는 안면에 발현됨을 서술하였다. 사람의 오장과 육부는 그 사람의 전체 기운과 피부 빛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의 기운과 피부의 빛은 오장육부의 지엽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오장육부의 근원이 견고하고 깨끗하면 그 사람의 피부 기색도 변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의 근본이 고갈되어서 마르면 피부의 지엽적인 기색의 빛도 마르고 영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다⁴⁶⁾.

色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의 精華이니 기운이 아주 정의를롭게 되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되면 그 빛은 밝게 나타나며, 胎息⁴⁷⁾ 얼굴빛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 정신과 얼굴빛이 잘 화합이 되어 피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정신이 능히 기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색의 빛이 밝으면 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이 막혀 있는 사람은 기운도 悽慘하게 되어서 얼굴빛이 어두운 느낌이 들고 凶하다. 그 얼굴빛이 광명이 없으면 족히 무슨 색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⁴⁸⁾. 이런 논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얼굴의 氣色이 맑고 깨끗한 것이 좋으며 윤택하게 윤이 나야 좋은 관상이며, 건강한 망진에 해당한다.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미용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데, 인체 미용의 많은 부분 중에서

생명력 있는 아름다움이 결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이는 신체와 감정 및 생각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다⁴⁹⁾.

화장은 각자 자신의 특유한 개성을 나타내는 얼굴을 중심으로 한 인상관리의 방법, 의도적인 표출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⁵⁰⁾.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문화로서 뚜렷한 특성을 지닌 메이크업은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 문화적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⁵¹⁾. 하지만 화장을 하는 목적은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도에서 각자 목적의 차이는 있지만 조화와 균형, 윤택한 피부를 지향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런 지향점은 망진 또는 관상에서 추구하는 기혈의 흐름이 좋고 오장신이 영롱하게 발현되는 맑고 윤택하며 적절히 피부 기욕 탄력이 있는 건강한 모습과 상통하며, 관상에서 부귀한 일반적인 상과 합일된다. 물론 낭만적 이미지(romantic image), 자연적 이미지(natural image), 전통적 이미지(classic image), 민속풍(ethnic image) 등⁵²⁾을 구분한다면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연적 이미지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아름다움이 바뀌고 기준들이 변화를 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위해 인공적인 것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좋은 이미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몸을 수양하여 품성을 배양하고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조절을 적절히 하고 기공을 하며 성생활을 주의하는 등의 전통적인 한의학의 양생법에 따라 장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유지시키고 생명을 유지시켜 가장 좋은 상태에 이

45) 윤창렬, 이남규, 김선호 해석. 현토완역 황제내경소문 왕빙주. 대전, 주민출판사, pp222-224, 2003. 生於心, 如以縞裹朱; 生於肺, 如以縞裹紅; 生於肝, 如以縞裹絳; 生於脾, 如以縞裹赭; 生於腎, 如以縞裹紫, 此五藏所生之外榮也.

46) 진담야. 상리형진. 서울, 황금시대, pp452-453, 1998.

47) 여기서는 下丹田을 말하는 듯하는데, 先天氣 또는 命門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48) 진담야. 상리형진. 서울, 황금시대, pp452-453, 1998.

49)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편집위원회 편저. 한방피부미용학개론. 서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p16-17, 2007.

50) 이난희. 현대사회의 화장의 의미. 2004년도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1-25, 2004.

51) 김수진, 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84-93, 1998.

52) 김수진, 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84-93, 1998.

르게 하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야 비로소 건강과 아름다움이 조화된 진정한 내실이 있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⁵³⁾.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는 고치기 힘들지만 얼굴의 색이나 분위기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화장을 한 상태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주고 받는다면 화장도 인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이나, 너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피부 화장으로 건강한 피부색을 표현하고 눈이 올라가서 사나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이라인을 내려 그리거나 부드러운 색의 눈 화장으로 편안한 이미지를 주고, 눈이 처진 사람에게는 눈 꼬리를 올려주는 눈화장으로 생기있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 코, 입 또한 모두 좋은 인상으로 수정 메이크업해준다면, 보다 좋은 인상이 될 것이고 좋은 인상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어 더욱 사회생활이 즐거워지고 일도 잘 될 것이다. 화장을 통하여 개인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운명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바꾸는 힘이 메이크업에는 있기 때문이다⁵⁴⁾.

IV. 결 론

화장의 심리적 기저를 보면 자신의 만족보다는 타인들의 시선과 관점에 따른 자기 부각이 강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장을 통해 일반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근거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미의 기준이 변화하면 동시에 화장의 트렌드도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나 영속적이면 건강함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조

화적 측면과 화장에서 추구하는 균형 및 조화는 상통하게 된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 화장의 객체와 방법은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화장은 외모에 대한 강렬한 추종으로 인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화장의 주체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어짐에 따라 역사적으로도 볼 수 없던 새로운 문화임에 틀림없다.

남성의 화장은 여성의 화장과는 달리 나르시즘 미학과 같은 개인적 만족 보다는 사회적 위치로서의 경향을 나타내며, 여성의 화장의 경우 특히 나르시즘 미학은 여성 개인이 가지는 미로써 그 여성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부장제의 미학은 여성의 미를 영원한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미는 젊은 여성의 산유물로서 여성은 세월에 인한 노화를 운동, 성형, 화장, 패션과 같은 인공적 고안물에 의해 동원하더라도 가부장제의 미적 이상이 고정되어 있는 이상 여성들에게 주어진 미적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압력은 현대 사회에 와서 남성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내는 현대의 남성들은 저마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외모를 꾸며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련된 용맹성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모와 젊음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성의 화장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성의 화장은 나르시즘이나 양성성의 표현이기 보다는 이성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표현임이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개인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외모지상주의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외모에 너무 의존하는 사회적 폐단 및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은 자기다움을 더 강조함과 동시에 외모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어 열등감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미적 요구 충족 뿐

53)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편집위원회 편저. 한방피부미용학개론. 서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p16-17, 2007.

54) 김명리, 김주덕. 화장행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화장품학회지 31(1)49:127-134, 2005.

만 아니라 사회적 대인 관계, 심리적 작용, 자기 강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화장의 입장에서 관상과 망진을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현된 결과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타인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는 고치기 힘들지만 얼굴의 색이나 분위기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화장을 한 상태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주고 받는다면 화장도 인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문헌

-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 김수진, 한명숙.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1):84-93, 1998.
- 한명숙, 선정희. 웨딩 메이크업의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7(2):73-85, 2001.
- 이난희. 현대사회의 화장의 의미. 2004년도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21-25, 2004.
-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對한 研究, 大田大學校, p.23, 1999.
-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 北京市, 人民衛生出版社, p.70, 1982.
- 大坊郁夫, 神山 進 編集.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京都, 北大路書房, pp30-40, 1996.
- 정복희. 화장과 인간 에로티시즘.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2):104-110, 2008.
- 맷 리들리, 김윤택 역. THE RED QUEEN. 서울, 김영사. p204, 2006.
-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p20, 2007.
- 나르시스의 꿈. 김상봉. 서울, 한길사. pp88-89, 2002.
- 김주원. 여성 신체와 미의 남용 -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시즘 미학. 미학 55:81-118, 2008.
- 제레미 홈즈. 나르시시즘. 서울, 이제이북스, p7, 2004.
- Abraham, Karl. selected papers of Karl Abraham. London, Hogarth Press, 1973.
- Bartky, Sandra Lee, "Suffering to be Beautiful", Gender Struggles: Paractical approaches to Contemporary Feminism, constance L. Mui & Murph(ed.),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S., 2002.
- who's afraid of feminism, Women in action, p40, 1995(3).
- Anna Yeatman. Postmodern Revisionings of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p49, 1994.
- 김용숙. 성인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신체 및 화장이미지. 복식 59(3):55-56, 2009.
- 임정빈, 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pp127-149, 1997.
- 구자명, 이구영.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 행동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6(2):124-136, 2002. /p134
- 김주애, 이연희. 남성 화장 특성. 한국패션뷰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pp.41-42, 2004.
- 박보영. 남성 색조화장의 역사적 고찰. 인체예술학회지 3(1):39-48. 2002.
- Aubrey, J. S. The Media's impacton self-objectification, body emotions, and sexual dysfunct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04.
- 크레이크(Craik), 정인희·함연자·정수진·김경원 옮김.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술, 2002.
- 캐쉬, 푸루진스키(Cash, Fruzinsky), 임숙

- 자 외 옮김. 바디이미지. 서울, 교문사, 2000.
26. 포슈(Posch), 조원규 옮김. 몸 숭배와 광고, 서울, 여성신문사, 2001.
 27. 박옥련, 이현지.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28(2):364-375, 2004.
 28.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p117, 2007.
 29.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편집위원회 편저. 한방피부미용학개론. 서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p16-17, 2007.
 30. 조성역 역. 완역 망의상법. 서울, 명문당, pp260-261, 1996.
 31. 진담야. 상리형진. 서울, 황금시대, pp452-453, 1998.
 32.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해석. 현토완역 황제내경소문 왕빙주. 대전, 주민출판사, pp222-224, 2003.
 33. 김명리, 김주덕. 화장행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화장품학회지 31(1)49:127-134, 2005.